



Occasional Paper Series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December 2003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필자 약력

Eisuke Sakakibara

現 일본 Keio대 교수.

Tokyo대 경제학과 후, Michigan대 경제학 박사.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 국제금융국장, 대장상 특별고문, 국제금융담당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대장성 국제금융담당 차관시절 '미스터 엔' 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엔/달러 환율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일본의 국제금융통임.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오늘날 세계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일어날 변화이다. 또한 기술혁신의 파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에서, 19세기말에 있었던 기술혁신의 파장으로 인해 세계의 크기가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혁신은 세계를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철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약 10~20년 전부터 이러한 말을 해왔다. 그들은 초현대 내지는 탈공업화 사회를 언급하면서, 세계가 대량생산 시대에서 벗어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집약되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및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술변화 외에, 과거 경제대국이었던 중국과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다시 부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있는 분업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앤거스 매디슨(Angus Madison)은 OECD 국가들에 대한 지난 200년간의 GDP 통계를 집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820년에 중국은 세계 GDP의 27%, 인도는 14%를 차지하였다. 즉, 1820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였다. 약 150여 년 전만 해도 중국과 인도는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대국이었다.

본인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 양국이 세계경제에서 다시 부상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낙후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들

* 이 글은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2003년 11월 21일 공동개최한 특별강연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은 항만과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업가정신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 무대로 복귀하는데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다.

1985년 말에 타계한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생전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세계의 중심이 뉴욕에서 어딘지 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사실, 세계의 중심은 20세기 초에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채 아직도 그대로 있다. 브로델의 말을 듣고 난 후, 본인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뉴욕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수십 년(40~50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는 중국과 아마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뚜렷한 현상은 기업간 협력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한 분석가가 S&P 500에 등재된 미국 주요기업을 조사한 꽤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에는 미국 주요기업 자산의 70%가 공장, 설비, 사무실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었는데, 지금은 그 70%가 로열티와 기술,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에서도 나타난다. 25년 전에 이 기업은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의료장비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업으로 변모하였으며, 의료서비스 부문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이 재화 생산자에서 기술 및 서비스 공급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여러 선진국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며,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 돈이 아니다. 과거 기업들은 자본을 형성하여 돈을 벌었다. 그러나 지금은 훌륭한 브랜드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기업들의 경우 돈 벌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본과 한국 기업에서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러한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장은 19세기와 20세기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시장지향적인 경제시스템의 새로운 형태이다. 이를 “신자본주의” 또는 단순히 “자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

러한 것이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은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커다란 기술혁신이 기업조직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유럽연합(EU)은 결성 이후 확대일로에 있다. 현재 15개국인 EU 회원국이 2004년에는 25개국이 될 것이며, 이 추세는 2007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의사결정 메커니즘, 지배체제, 지역행정 등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가 확대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앞으로 5~10년 후에 러시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간의 결속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흔히 “세계화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또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간 FTA 형태로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역협력 움직임의 실제 배경은 무엇인가?

본인은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서서히 분산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를 형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WTO, IMF,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하지만 WTO의 기능은 중국,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WTO, 세계은행과 더불어, G7도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지도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시스템은 20세기말까지 꽤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다. 그런데 G7 체제 역시 서서히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개도국에게 보다 공정한 세계적 메커니즘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는 어떠한가? 아시아의 통합은 유럽이나 북미대륙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 보면, 아시아의 통합과 협력은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합과 협력은 1980년대 말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 기업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기업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접어들면서는 중국과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도의 통합이 또 다시 급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무역 및 직접투자(예: 한·중·일 기업간의 합작투자)를 통한 역내 협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실, 유럽통합은 정책결정자들과 엘리트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실제로 유럽에는 좋지 않은 과거유산을 잇고 유럽을 통합하고자 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상당기간 존재해 왔으며,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프랑스와 독일간의 합의가 EU의 핵심이다.

아시아의 통합은 이와 경우가 다르다. 아시아 지역은 시장과 민간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민간부문만큼은 단일 경제지역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에게는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유럽과 같은 형태의 정치적 의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일 및 중·일 관계에서 좋지 못한 과거유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러한 과거유산을 정리할 수 있다면, 한·일 및 중·일 관계에서도 이 역시 정리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1,50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왔지만, 2차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과거유산을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일본 총리는 전범의 위배를 안치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해야 한다. 고이즈미 내각 이후 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총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중·일 간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다. 물론 마찬가지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본인은 한·일 및 중·일 관계가 지난 5~10년 동안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민간부문과 시장을 지원하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의지 형성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요인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내 협력을 위한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게는 어렵고 미묘하며 민감한 일이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결국 미국은 지역협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열망을 인식하게 되어, 어느 시점에 가면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과 같은 기구를 인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향후 10년간은 한국과 일본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은 시장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위안화를 재평가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크게 찬성한다. 이 부분은 본인과 일본 정부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현재 본인은 사립대학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의 본인 후임자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면 아마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소니(Sony)는 삼성과의 합작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산요(Sanyo)는 이미 합작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마쯔시다(Matsushita)와 NCL과의 합작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한·중·일 경제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중국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기술 특히 응용부문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기술을 보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 도시바(Toshib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세 곳뿐이다. 기초기술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만, 응용기술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우수하다. 오늘날 기술 기반 특히 정보기술(IT)의 기반은 단독형 개인용 컴퓨터(PC)에서 TV,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를 PC와 연결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이다. 한·일 양국 기업들은 TV와 휴대전화 부문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PC와 디지털 카메라에 연결시킨다면 유비쿼터스 통신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문기술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저임금과 결합시키면, 한·중·일 3국 모두는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엄청난 생산성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판강(Fan Gang)은 중국의 개발전략을 “PPP”로 설명하였다. PPP는 통상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를 뜻한다. 그러나 판강의 PPP는 “단계적 병행발전(parallel

partial progression)”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나란히 추진되는 점진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그는 중국의 전략을 “PPP” 전략이라고 묘사했으며, 이러한 단계적 병행발전은 현재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이 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역내무역 그리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아세안(ASEAN)+3국간의 FTA도 체결하도록 하자. 물론 농업부문이 문제이다. 한국에도 농업개방 반대세력이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 견줄 바가 못 된다.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은 일본 재무성의 전직 관료로서 아주 예외적인 일을 한 바 있다. 본인이 작년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야당을 지지한 것이다. 이 야당이 지난 선거에서 추가한 의석수는 40석이었으며, 다음 선거에서는 자민당(LDP)의 장기집권이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지금은 일본 정치권에게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 경단련(Japanese federation of managers)이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을 배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훨씬 더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농업개방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유무역시대 형성을 공동 추진해야 하며, 일본은 한국 및 중국 그리고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환율부문에서의 협력증진도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보유고를 축적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25%~15%, 혹은 10% 정도라도 공동자원으로 책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소위 아시아통화기금(AMF)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어떤 것이 되어도 무방하다. 우리는 이 기금을 위기방지를 위한 공동개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 외환기금으로 우리는 OECD와 같은 기구나 사무국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의 공동감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역경제에 대한 공동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구나 사무국은 역내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아시아 지역협력을 추진할 적기이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신(新)지도부는 과거 지도부가 겪었던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역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일본에 화해의 손을 내

밀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여기에 화답할 의무가 있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본인은 60대로서 같은 세대이다. 우리 세대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특별한 경우이다. 일본 총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물론 본인도 화창한 여름날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 야스쿠니 신사 역시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본인은 그곳에 참배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본인은 특별하지 못하며 오히려 평범한 편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지난 5~6년 동안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한·일 양국의 젊은층들은 서로 상대방의 영화를 좋아한다. 한국 영화와 TV드라마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일본의 가요 등을 좋아한다. 양국 문화유산에는 유사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 양국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이미 진행중인 통합을 확대시킬 정치적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문제를 다시 언급하겠다. 본인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아시아의 민간부문은 상당한 폭으로 상호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인 '니혼 게이자이(Nihon Keizai)' 신문이 일본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기 바라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의 70%가 "우리는 위안화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중국경제에 통합되어 있다. 일본 기업은 부품을 수출하며,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한국(부분적으로)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소폭의 변동을 허용하는 고정환율제인 크롤링 페그(crawling peg)제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환율이 변동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해도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 디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본인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해오면서 막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은행여신의 20~25%가 이와 같은 부실채권이다. 아시아시피 이러한 공식적인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이 자산의 40~50% 수준일 경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실채권의 이면에는 국영기업(SOEs)이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그들은 수익과 자산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중국은 최소한 향후 5~6년 동안 7~8%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 앞으로 4~5년 동안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중국경제가 침체될 경우 이 모든 문제들이 표면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중국 지도부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 약 3~4년 전부터 중국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중국은 취약하고 약점이 많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 그러하며 중국 지도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1960년대 초의 일본과 흡사하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와 같은 것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는 1985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베이징 합의(Beijing Accord)”나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먼 훗날의 일이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현재 감소추세이며, GDP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는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주요 수입국이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반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대국이며, 중국의 내수시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위한 열쇠이다.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를 절대 평가절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책임급 인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항상 아주 정중하고 세련되어 있다. 그러나 양단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단호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미국인들에게 계속 해오던 말이 있다. 즉,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양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러한 것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이다.

 질 의 · 응 답

[질 문] 본인은 중국 지도부가 현시점에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바이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위안화 재평가의 적기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과 생산성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정환율을 계속 주장할 경우 언젠가 중국은 환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과 함께, 고정환율체제와 변동환율체제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주요 환율체제를 보아왔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정환율제도가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이면의 근본적인 요인이 변화될 경우에는 환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지연되면 될수록 더 큰 혼란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귀하가 전 세계, 그리고 문제에 당면한 중국에 제안을 한다면?

[답 변] 결국 중국은 자국의 외환통제와 자본계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변동환율체제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향이 중국에는 중국이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순서”의 문제가 있다.

자본계정에 대한 규제를 원활하고 순리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내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의 중국 금융시스템은 혼란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본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국의 금융권은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으며, 4대 주요은행은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는 지방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중국은 앞으로 4~5년 동안 7~8%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중국은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적절한 금융감독청(FSA)를 설치하였으며, 중국은행(Bank of China) 총재를 역임했던 유능한 인사가 금융감독청을 현재 맡고 있다. 우연히도 그는 본인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그가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본 연후에 중국이 보다 유연한 환율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자.

[질 문] 귀하는 일본경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겠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경제가 10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답 변] 지난 4~5년 동안 본인은 일본경제에 비관적인 평가를 해왔으나 지금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일본경제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80년대 말 이후 계속 하락해온 일본의 기업수익률을 살펴보자. 1980년대 말에는 기업수익률이 약 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수익률이 1990년대에는 5%로 하락했으며 2001~2002년에는 거의 0%까지 내려감으로써,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동안 기업수익률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03년의 평균 기업수익률이 약 15%로 증가한 것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 일본 기업수익률은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최소한 골드만 삭스의 최근 조사는 일본의 평균 기업수익률이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은 마침내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졌다. 가와사키 스틸(Kawasaki Steel)이 닛본 코칸(Nippon Kokan)과 합병하여 현재 거대한 단일기업이 되었고 다른 많은 제철소들은 문을 닫았다. 철강산업에서 일종의 업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경기순환상의 침체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바는 플래시메모리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이미 양산체제에 들어갔으며 닛산(Nissan)도 재기한 상태이다. 캐논(Cannon)과 니콘(Nikon)과 같은 많은 기계류 제조업체들 역시 새로운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다.

이미 언급했던 응용기술 개발과 앞서의 구조조정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일본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훌륭한 응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용성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때에 커진다. 기술의 새로운 영역이 한국과 일본에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수익률의 회복은 지속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3년도의 일본 경제성장률은 약 3%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2003년도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연초의 0.7%에서 상향 수정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서 볼 때 일본의 금년도 실제 경제성장률은 2.1%를 상회하여 3%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도의 경제성장률이 3~3.5%가 된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재정 및 금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요 은행들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므로 대형은행이 관련된 심각한 금융위기는 더 이상 없겠지만,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방은행의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일본 언론계에서는 정부관리체제에 들어갈 지방은행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지방경제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세계화와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적응이 된 상태이지만 지방경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규모 수출업체들이 경영실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일본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부에 의해 통제 및 규제되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다. 여기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유통업, 농업, 식품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보조금 축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이즈미 개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고이즈미 정부를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 즉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정부라고 부른다. 그는 개혁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 이제는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이 실행되고 역동적인 수출업체들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5~6년 동안 5%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는 것이 일본에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희망이며,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경제가 향후 2년 남짓 동안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질문에 앞서, 한국에서는 고이즈미 총리보다 이시하라(Ishihara) 도쿄지사를 더 문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은 그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그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그가 일본 정치인들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의 모습을 올바르게 묘사했다. 본인도 귀하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나, 현재의 전개과정에 반(反)세계화 현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세계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통합이 될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이며, 미주대륙의 국가들도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들 3개 지역 간의 세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세계경제는 대폭적인 지구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질서 내의 대표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귀하가 언급한 세계중심의 이동은 양극체제의 세계에서 3극체제의 세계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유럽 및 미주대륙 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질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개과정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귀하는 이에 관한 현재의 교착상태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신사참배나 교과서 등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즉, 현재의 교착상태의 배경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으로서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제력과 영향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귀하는 한·중·일 3국의 역할분담 유형을 설명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자만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산업화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의 야심은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을 따라잡는데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영향력을 나누어 갖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생각되는 양국간의 근본적인 불화는 아마도 단순히 역사교과서가 아닌 이러한 점 때문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한·중·일 3국간의 FTA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극적이지는 않은가? 또 귀하는 중국 지도부가 3국간 FTA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이시하라 지사가 큰 문제인데 적어도 그의 아들은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당선되었고 다른 한 명은 낙선을 한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의 경우는 일본의 서민감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본인의 내면에는 강한 국수주의와 배타주의가 흐르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는 분명히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좋지 못한 내면의 흐름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조금씩 흐르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국수주의 및 배타주의의 감정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존재하며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협력이 이득이 되고 우리 모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시현함으로써 이를 타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언급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는 정치적인 현상이며, 이시하라가 그 선봉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에 맞서야 한다.

본인은 세계가 점점 더 지구촌화되어 간다는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 아시아 지역 협력의 유형은 반세계화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화적인 것이다. 본인은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ing)이라 부른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본인이 칠레나 멕시코와의 FTA를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FTA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가 담을 쌓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밀한 지역협력관계 수립인데, 멕시코나 칠레, 나아가 EC나 캐나다와도 관계를 수립 못할 이유가 없다. 유럽통합, 아시아통합, 미주대륙 국가간 FTA 등의 지역주의는 세계화로 가는 첫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가 지역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질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세상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간에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 세계화의 추세가 약화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귀하가 언급하였듯이 아시아의 참여가 보장되는 3극체제의 세상이 되어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과장하고 있다. 본인은 반미주의자가 절대 아니며,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기도 했고 미국의 대학과 사회를 존경한다. 하지만 대항세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각각 대항세력으로 두고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다극화되고 공정한 세계질서를 이룰 필요가 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귀하의 견해가 옳다. 이는 패권경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중국이 결국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안 된다. 일본은 아시아대륙의 반도 끝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하다. 즉, 일본은 영국과 같은 처지인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처럼 아시아의 대국은 중국과 인도이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난 1,5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냈으며, 어떻게 하든 지금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애써왔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일지도 모른다.

본인은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에서 지역패권 다툼을 해서 안 될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었고,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일본 패권주의는 좋지 않은 과거유산들을 다시 만들어낼 뿐이다.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패권이 아니라 협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중국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질문] AMF에 관한 귀하의 우호적인 언급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 이 AMF의 구상이 왜 소멸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AMF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그 당시 AMF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여기에는 물론 미국의 커다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후회하는 부분은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본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협의할 만한 중국 당국자를 만나지 못했다. 본인은 홍콩 금융당국을 통해 중국에 접근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걸렸고, 반면에 AMF 협상은 4~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애초에 AMF 창설 안이 너무 급하게 제안되었던 탓이다.

중국의 관료조직은 방대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따라서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국과 협의했어야 했다. 그 이후 AMF와 아시아 금

융협력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바뀐 상태이다. 그동안 중국은 여러 기관에서 연구진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지금은 지역금융협력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AMF에 대한 구상이 나타난 시기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말레이시아로 확산되던 무렵으로, AMF와 같은 기구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일 그 때가 위기의 와중이 아니었다라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초 AMF 창설 안은 2주 만에 작성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금융위기가 말레이시아로 확산되리라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 위기가 한국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가 그 해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AMF 창설을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질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는 아주 성공적이다. 게다가 아·태지역 11개국의 중앙은행이 아시아본드기금(Asian bond fund)에 협력하기로 동의한 상태이며, 그 차기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지역금융협력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도 일본 주도의 AMF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의 아시아개발기금(ADF: Asia Development Fund)의 경우 중국, 몽고 등 동북아시아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대출규모의 1.8%에 불과한 반면,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은 총 대출규모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귀하는 동북아시아개발기금(Northeast Asian Development Fund)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아시아본드에 대한 제안은 유익한 것으로, 공동 추진하여 서울 또는 동경, 아니면 방콕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일본 재무성과 한국 재정경제부가 특정 부문의 합의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DF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옳은 것이며, ADF의 범위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ADB 역시도 더욱 활성화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AMF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구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구상은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항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미국 국채에만 투자되고 있으며, 물론 이 자금은 미국 금융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인은 미국 시장에서 이 자금을 모두 회수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의 10% 정도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외환보유고의 10%를 가지고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공동관리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분명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현재 외환보유고는 본인이 재무성 차관으로 있을 때의 3배이다.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4년 동안에 이처럼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우리는 이 외환보유고의 10%를 가지고 전략적 목적으로 공동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성숙된 채권시장을 만들거나, 보증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일종의 보조금 형태 등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활용 방안은 다양하며, 이러한 활용은 지역협력의 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The global economy today is going through a very dramatic transformation, the sort of transformation that occurs only once every century or two. The current wa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ccelerating and changing our society and economy in fundamental ways.

Tom Friedman, a journalist with the *New York Times*, wrote a book called “The Lexus & the Olive Tree”, in which he said that wav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re-sized the world from “large” to “medium”. I would say that today’s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re-sizing the world from “medium” to “small”.

Historians in hindsight will probably call this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f course, philosophers and futurists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about a decade or two. They talk about a post-modern, or post-industrial, society and claim the world is moving from an age of mass production to an age centered on technology, knowledge and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This is the economy and society in which we now live, strongly based 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shift, the world is seeing the re-emergence of formerly great economic powers, specifically China and India. This is dramatically altering the division of labor not just in East Asia but also in the whole world. Both China and India were dominant economic powers up until the 19th century. Angus Maddison, a well-known US historian, compiled GDP data over the past 200 years for the OECD countries. According to his data, China had 27% of the world’s GDP as late as 1820, and India had 14% in that year. So China and India combined had

* This is a transcript of a speech given at th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November 21, 2003.

more than 40% of world GDP in 1820. At that time, the UK, which was just emerging as the eminent power of the world, had only 5% of world GDP. China and India were the dominant economic powers for some 150 odd years.

My reason for referring to these historical developments is to point out that both India and China hav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their re-emergence into the world economy. Although their hard infrastructure has become somewhat obsolete, they do have ports, roads, and the like. But above all, they have entrepreneurship and a human network of citizens living abroad. These will constitute the force behind the comeback of China and India into the world economy.

In his last interview before his death in 1985, Fernand Braudel, a very well known French historian, said that the center of the world seems to be moving from New York to somewhere as yet unknown. In fact, the center of the world had moved from London to New York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oday it is still New York. But after hearing that prediction by Braudel I would hazard a guess that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is slowly shifting toward Asia, with China as the center. This is happening in a timeframe of decades, 40 to 50 years. The US is, for the time being, the dominant economic power and will continue to be so for at least some time to come. But if you are trying to foresee the situation 50 years from now, it is most likely that Asia, centered in China and possibly India, will be the engine of the world economy. This is a 'futurist' prediction. There seems to be slow movement in that direction.

There is another very conspicuous phenomenon taking place in the world today tha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form of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Interestingly, a US analyst conducted a survey of typical US companies listed on the S&P 500 index. Twenty years ago, 70% of the assets of a typical US company were tangible assets, e.g., factories, equipment, and offices. But today, a survey of the same companies reveals that 70% of a company's assets are non-tangible assets, e.g., royalties, technologies, brand names, and databases.

General Electric can be used as an illustration. Twenty-five years ago it manufactured products such as refrigerators and air conditioners. Now it is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companies in the world with a focus on high-technology medical equipment, and it is deep into medical services as well.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has shifted from being a producer of goods to a provider of technology and services. This is a fundamental change that has taken place in corpor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The same thing is slowly taking place in Japan and Korea.

What matters now is the technology, not the money. Corporations used to be organized to raise capital, to acquire money. But now, if the corporation has a brand name or a good database, money is not that difficult to obtain. That may not be true yet in Japan and Korea, but the world in general is moving in that direction. The new chapter on the global economy is not one that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but instead is one that describes the current change to some new type of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This could be called “new capitalism” or just “capitalism” but, in any ev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focal point of the world economy has shifted toward East Asia, and major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dramatically altering the patterns of corporate organizations.

With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re is a great deal of “regionalization” as well. The European Union (EU) has been formed and is rapidly expanding. In 2004, the EU will expand from its current 15 countries to 25 countries. By 2007, it will expand even further. Of course, this process follows a zigzagged course. There are difficulties in many areas, including the decision-making mechanisms, presidential systems, local administrations, and so on.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EU, despite its zigzagged course of difficult negotiations, will expand. Furthermore, if we look five to ten years in the future, it is not impossible that we will see Russia join the EU. This possibility enhances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coalition of Germany, France, and Russia that has formed relative to Iraq-related issues.

The current perio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age of globalization”. Tru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re proceeding apace. But at the same time, regionalization, particularly in the form of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bilateral FTAs, is also progressing very rapidly. What is actually behind this regional cooperation movement?

I think there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slow disintegration of the US-centered world regime, which has the WTO, the IMF, and the World Bank as its main mechanisms. The WTO mechanism seems to have been weakened by the emergence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Brazil, and Mexico.

The G7 has played a crucial role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supporting US leadership, supplemented by the IMF, WTO, and the World Bank. This system worked fairly efficiently up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But the G7 mechanism seems to be slowly disintegrating. We are now viewing a global mechanism, more equitable vis--vis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Brazil, Mexico, and South Africa. There is a slow disintegration of what we have called the “Washington consensus”.

What about Asia? They say Asian integration has lagged far behind that of Europe and the American continents. This is true. But if you look at it from another angle, you see that Asian integration and cooperation has been proceeding fairly smoothly, led by more and more direct investment. This started in the late 1980s spearheaded by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going into Southeast Asia and followed by Singaporean and Taiwanese corporations. Toward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into the early years of the 21st century, once again, private sector-led integration is proceeding very rapidly, often in Chin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tra-regional cooperation in trade and direct investment (for example, joint ventures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quite dramatically. It is true that Europea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was led by policymakers, by the elite. In fact, there has existed for some time a very firm

political will to unite Europe and forget past negative legacies. The Franco-German agreement to stop warring with each other is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Union.

That is not the case with Asian integration. Here, integration has been led by the market an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a fact that intra-regional economic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 in East Asia. China, Korea, and Japan are beginning to integrate into one economic region, at least where the private sector is concerned.

In the Asian region, however, political leaders have not developed a European-type political will to integrate. Fault for this lies, first, on the Japanese side. Japan-Korea and Japan-China have not forgotten their past negative legacies. If France and Germany can put these legacies aside, Japan-China and Japan-Korea can do it too. Of course, we have been warring for the last 1,500 years. But if we could put those legacies behind us, just as the Germans and French did after World War II, then we would be better off.

For example,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ould stop going to Yasukuni, the controversial shrine for the war dead. Once the Koizumi government falls, I don't believe that any subsequent Japanese prime ministers will visit that shrine. As you can see, there are various actions the Japanese can take to form a new alliance among Japan, Korea, and China. Of course,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as well.

I think our relationships, Korean-Japanese and Chinese-Japanese, have improved a great deal during the course of the last five to ten years. I do not think it would be all that difficult to form some common political will in the region,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 and the market.

Another obstacle to developing a regional political will in Asia is that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have an underlying connection with the US. There is a dominance of the US in this region, both i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s.

Needless to say, we have to maintain a good, friendly alliance with the US. But while maintaining that alliance, we need to form a common political will for regional cooperation. This is a very difficult, subtle, and delicate business, particularly for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But it needs to be done. I hope that recognition on the part of the US for the Asian desire to strengthen its regional cooperation will eventually be forthcoming and that the US will at some point approve of an organization such as an Asian Monetary Fund (AMF). I think this situation seems to be evolving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ext decade will be an interesting one for both Korea and Japan, as they try to form some kind of political coalition to accelerate their growing market integration. There has been lots of criticism of China for its exchange rate policy for the yuan. But on this issue, I strongly endorse the Chinese government's decision not to revalue the renminbi/yuan at this time. This is one point on which I differ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 am now at a private university, so I have the freedom to criticize the

Japanese government. If my successor at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were here, we would have a serious discussion on the matter, as he would probably be urging China to revalue the renminbi.

An integrated economy is developing in this region. Sony has proposed a joint venture with Samsung, Sanyo has formed a joint venture, and Matsushita has formed a joint venture with NCL. The economies of China, Korea and Japan are complimentary. China has very low-cost but high-quality labor, and both Japan and Korea have technology, particularly on the application side.

Take, for example, a technology like flash memory. Only three companies in the world have this technology: Samsung, Toshiba, and Microsoft. US corporations are dominant in the basic technologies. But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are good at applications technology. Nowadays the technological platform, particularly in IT, has shifted from stand-alone personal computers to more universal communications platforms that connect personal computers with televisions,

mobile telephones, and digital cameras. This is an area where Korean and Japanese firms excel. We have the technology in television and in mobile telephones. If we connect those to the PC and the camera, we can have an extensive communications platform. Combine this expertise with China's high-quality, low-cost labor and the resulting cooperation would be extremely productive and rewarding for all three countries.

What is really necessary is to push for progress on all fronts. A well-known Chinese economist by the name of Fan Gang has labeled the Chinese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acronym "PPP". This usually stands for "purchasing power parity". But in Fan Gang's usage it stands for "parallel partial progression" meaning to push on all fronts, simultaneously, in a parallel manner, and to proceed gradually. He describes the Chinese strategy as a "PPP" strategy. It is parallel, partial and progressive, and I believe it has been successful.

Why don't we adapt this strategy for Asian cooperation and integration? We should push regional trade and even an FTA. Let's have an FTA among the ASEAN+3 countries. Of course, agriculture is a problem. You have an agriculture lobby here in Korea, but it is nothing compared to the impossible agriculture lobby in Japan. You may not be aware that I have done something quite unusual for an ex-official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I openly supported the opposition party in the last election. The opposition party gained 40 seats in that election, and in the next election the LDP's long rule may come to an end. This is an interesting period on the political front as well. The Japanese federation of managers has said that it would allocate political funds not only to the LDP but also to the opposition party. So things are starting to become much more fluid in Japan. But we still must do something about our agriculture lobby.

We should jointly promote the formation of FTAs. We need an FTA with China, Korea, and the ASEAN countries. We also need to proceed furth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o promote joint venture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We need to do all of these things in this region.

Of course, we also need to proceed on the foreign exchange front. We now have huge foreign reserves. For example, Japanese foreign reserves exceed US\$ 600 billion. Korea has also accumulated a large amount, as has China. We should earmark about 25%, 15%, or even 10% of our foreign reserves and jointly manage the resources. We could call it an AMF, or some other name. We could use it for joint interventions, crisis prevention, and various other purposes. With such a large pool of foreign reserves we could have some type of mechanism or secretariat with some level of joint surveillance or joint analysis of the economies of the region *à la* OECD. There could even be a forum for the discussion of various joint policy issues that abound in this region.

The time is ripe to push forward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on the part of Korea, Japan, and China are very important. The new Chinese leaders are quite positive on regional cooperation. They are less negative on Japan, since they have no direct memories of past wars, as did their predecessors. They are extending their hands to Japan, and it is the du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shake those hands.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ould stop going to Yasukuni and stop commenting on the issue of textbooks. These things he can easily do.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Mr. Koizumi and I are from the same generation, around 60 years old. Maybe less than 1% of people from our generation visit that shrine. The prime minister is an exception. Why should he do that? Of course, I, too, have taken a walk in the adjacent park on very nice summer days. It's a lovely park. But I have never gone to the shrine to pray. I am not an exception in this regard. Rather, I am the norm. The prime minister is the exception. So in that respect he could change quite easily.

Our relationship has improved so dramatically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or six years. Japanese and Korean young people love each other's movies. Korean movies and television dramas are very popular with Japanese youth, and vice versa. Many of your young people also quite like Japanese songs, and so on.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our cultural heritage. We need to recognize that. We need

to have the political vision of enhancing the integration already in progress, both in the economic and cultural spheres.

Finally, let me go back to the renminbi issue. Why do I oppose pressuring China to revalue the renminbi? First, as I said, our private sectors have been quite significantly integrated with each other. The Nihon Keizai Newspaper, a well-known Japanese economic journal, surveyed major Japanese corporations. The question it posed was, "Do you want Chinese authorities to revalue the yuan?" Over 70% of those surveyed answered, "No. We want a stable yuan. We are quite significantly integrated into the Chinese economy. We export parts. We have networks of production in China, Japan, Vietnam, Thailand, and some in Korea."

Those networks are already there. They exist. The corporations now want a stable exchange rate. Something like a crawling peg is out of the question. A fluctuating exchange rate, they don't like at all. I would imagine that if you take a similar opinion poll among Korean corporations, the result would be nearly the same. These accusations of exporting deflation and unemployment are political issues. They are not economic issues. Economically, we are now being integrated.

Another reason I oppose the revaluation of the renminbi is that the Chinese economy is very vulnerable. It has grown at a very rapid rate and has attracted a huge amount of FDI. But there is an issue concerning non-performing assets. Between 20% and 25% of bank loans are non-performing. As you know, the official numbers are probably understated. So you can imagine what it would mean if 40% or 50% of assets were non-performing.

On the other side of the non-performing asset problem are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There are some marvelous, dynamic SOEs, but some are in *de facto* bankruptcy. They have problems with income and asset inequality,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so on. China needs to grow at 7% to 8%, at least for another five or six years. China need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significant amounts for another four or five years. If the economy slows down, all these problems will come to the surface. China's economy, as well as China's political regime, would

be a mess. Chinese leaders know this. About three or four years ago, all Chinese leaders started saying to people like us, “China is weak. China is vulnerable.” That is true, and they recognize that. China today could be the Japan of the early 1960s. It may eventually need some sort of Plaza Accord. The Plaza Accord was in 1985. So maybe 20 years from now we will have some sort of “Beijing Accord” or “Shanghai Accord” that will revalue the renminbi. But that would be far in the future.

The Chinese trade surplus is declining. It is only 1% of GDP. China has a huge surplus with the US, but with most Asian countries it is a major importer. For example, it is a major importer of Japanese and Korean semi-finished goods. It is not only an exporting country. It is a trading giant in Asia, particularly in this region, and China’s domestic markets will be the key to this region’s prosperity.

Chinese leaders will never revalue. If you discuss this issue with Chinese people who are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they are always very polite and very sophisticated, but in one way or another, their answer is always, “Absolutely not!” We have all experienced this. It may be impolite to say this in Seoul, but I keep telling the Americans that you can pressure Japan or Korea and we will yield. But don’t ever push the Chinese. They will never yield. This is my view on the Chinese yuan.

Questions & Answers

Q fully agree with your assessment that the Chinese leaders will never agree to revalue at this time. I, myself, am not exactly sure whether or not this is the right time for that. But given the fact that Chinese technological and productivity gains are very, very rapid, if they persist in staying with a fixed exchange rate forever, sometime or another they are going to face a huge problem of gigantic adjustments of currency exchange r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we have seen many economic problems and two different major exchange rate regimes: fixed exchange rates and flexible

exchange rates. Fixed exchange rates in the short term, of course, work much better. It gives us stability, predictability, and so forth. But when the fundamental factors behind the scene change, how do you make the adjustment? The longer you wait, the more the chaos and bad results. How do you propose the world, and China, face this problem?

A The Chinese will eventually deregulate their foreign exchange controls, deregulate their capital account, and move toward some sort of floating regime. That is the course China will eventually follow.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But there is a question concerning what has been called “sequencing”.

In order to deregulate capital accounts in a smooth, orderly manner,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ong domestic financial system.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t this moment is a mess. I talked earlier about its non-performing asset problems. There are four major banks, and they all need to be restructured. Then there are region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need to be restructured. While China grows at 7% or 8% for the next four or five years, it needs to restructure its financial system before opening its capital account to the rest of the world.

Fortunately, they are prepared to do the job. They have now set up the Chinese equivalent of a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FSA). A very competent fellow, who used to be head of the Bank of China, is now the minister in charge of this FSA. He just happens to be a very good friend of mine. He is set to restructure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in a fundamental way. Let’s wait for that restructuring to take place and then cooperate with China to move toward a more flexible exchange rat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Q You said that you would discuss the outlook for the Japanese economy. It seems to be recovering. It looks as if, after ten years of sluggish growth, it’s turning around. Is that your assessment?

A After four or five years of expressing pessimism about the Japanese economy, I am now able to be optimistic. A couple of things have happened recently to the Japanese economy. First, remember that Japanese corporate earnings have been declining since the late 1980s. Good earnings in the late 1980s were around 12%. They came down to 5% in the 1990s, and in the year 2001-02 they dropped to almost 0%. There has been a fairly consistent decline in corporate earnings over the course of the last decade or so. But in the year 2003, corporate earnings on average increased by some 15%.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Goldman Sachs, in 2004 earnings will increase by as much as 20%.

Now, of course, there i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in these numbers. This is a very uncertain world. Whether or not that prediction turns out to be true depends on many factors. But at least, this recent survey indicates that on average there will be a 20% increase in Japanese corporate earnings this fiscal year.

Japanese corporation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competing globally, have finally moved to restructure their operations. Restructuring on the part of big Japanese corporations has been proceeding very rapidly. Look at the steel industry. There have been many mergers and acquisitions. Kawasaki Steel merged with Nippon Kokan, and is now a giant steel company. Many other steel mills have been closed. Some industrial reorganization seems to be taking place in the steel industry.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been suffering from a cyclical downturn. Now, though, they are developing new technologies. Even Toshiba, which suffered extensively, has developed flash memory technology and is producing flash memory devices in large quantity. Nissan has revived. There are many machinery makers, like Canon and Nikon, which are coming up with new product lines.

Restructuring efforts in combin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technology, to which I referred in my speech, are helping. Japanese companies are quite good at applications technology. Even if you have cellular telephone or digital technology, that is only significant if you can create new products that use it. The technological frontier has moved to an area where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have an advantage.

So I believe the corporate earnings revival is sustainable. The growth rate for 2003 will be close to 3%. The government forecast right now is 2.1%. This is a revised forecast, up from 0.7% earlier this year. But in all likelihood, I think the actual growth rate will exceed 2.1%, and come close to 3%. For 2004, I would not be surprised to see 3% or 3.5% growth.

Having said that, let me add a caveat. The financial and banking problems are not yet resolved. For the major banks, things are improving. There won't be any more major financial crises involving mega-banks. But there are many regional banking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must address. There are rumors in the Japanese press that this regional bank or that regional bank will be dealt with by the government. These problems still persist.

The Japanese regional economy is still suffering. Big Japanese corporations have adapted to globalization and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economy. But regional economies have yet to adapt to the new pattern. The regional economy is still declining. Large, export-oriented corporations are improving their performance dramatically and pulling up the Japanese economy. However, this really needs to be followed by the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 of industries that are government controlled, regulated, and subsidized. By that I mean construction, real estate, distribution,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Major deregulation and major de-subsidization of those industries should follow.

This is what "Koizumi Reform" has been all about. "Koizumi Reform", though, has not been implemented. I call the Koizumi government the "NATO" government, or the "No Action, Talk Only" government. Koizumi

talks about reform, but has not been able to implement it. We should now implement it. If we could implement those reforms and follow in the steps of those very dynamic, export-oriented corporations, it is not impossible for the Japanese economy to grow at 5% over the next five or six years. I hope that will happen. But for the time being, I think the Japanese economy will only grow slowly over the next two years or so.

Q Before making my major points,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we here in Korea probably have fewer problems with Mr. Koizumi than we do with Tokyo Governor Ishihara. You should do something about him. He has been infuriating many Koreans. He may not be representative of Japanese politicians, but he's bad. He's really bad.

Now, you have rightly described the picture of regional integration that is taking place in this part of the world. I agree with you on that. But I would note that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s not considered a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It constitutes the first phase of more intensified globalization. There will be East Asian integration, European integration, and integration among the countries of the Americas. After this phase, I think there will be integration among these three centers of the world. Eventually we will have a much more deeply globalized world economy. We are in the opening phases of that.

To manage this process, East Asia needs better representation in world governance. The shift of power you described represents a shift of power from a bipolar world to a tripolar world. This new world will be governed not only by Europeans and Americans but also by Asians. This will make it possible for us to pursue greater global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so on. This is a very good process.

For that, we must have closer collabo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Japan. You described the current stalemate on this front and attributed it to history. But I'm not sure it is related only to the

issues of the shrine, textbooks, and so on. I think there is something much more fundamental and profound behind these differences. I believe China and Japan are reluctant to share power and influence.

For example, you described a very nice pattern of specializ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here China would sell cheap labor. But I'm not sure the Chinese would be content as being merely a supplier of cheap labor. They have their own industrial ambitions. They have launched a satellite. I think their ambition is to catch up with Japan, not to mention Korea, in the whole spectrum of high technology. This represents their unwillingness to share power and influence. It may be this much more fundamental disagreement among the countries, rather than just a historian's textbook, that I think represents a very formidable obstacle.

Finally, about the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a nutshell, isn't the Japanese government in favor of pushing for a trilateral FTA? Do you think the Chinese leaders are genuinely interested in pushing this trilateral FTA?

A Ishihara is a major problem. At least his son was not elected to the lower house. He has two sons. One was elected, but the other was not. This is a problem with the Japanese populace. There is a very nationalistic and xenophobic undercurrent, particularly vis-à-vis Korea. This is deplorable. Absolutely deplorable. You need to stop the flow of those very bad undercurrents while they are still just a trickle. We need to be very careful. This nationalistic, xenophobic feeling exists in every country these days, in the US and elsewhere. We need to counter it by showing that regional cooperation really pays and improves living standards for all. The "China bashing" I have been talking about is, again, a political phenomenon. Ishihara is spearheading this. We need to fight against those forces.

I agree with you that globalization has intensified. The type of regional cooperation that is taking place in Asia is not anti-globalization. It is for globalization. I would call it global networking. This global networking will

increase. That is why I do not oppose an FTA with Chile or an FTA with Mexico. I think we should proceed with that. We don't need to erect a wall around East Asia. We need to establish close regional relationships, but why not a relationship with Mexico? Why not with Chile as well? Why not with the European Community and Canada too? I think regionalism is only one phase of globalization: European integration, Asian integration, and the FTA of the Americas.

Our relationship with the US, even while we move forward with regional integration, will become closer and closer.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at. This is a small world, which could be connected in real time at a very low cost. I do not believe for a moment that the momentum of globalization is weakening. But as you said, if we could set up some kind of tripolar world where Asian participation were secured and if we could manage globalization, it would be very good for us.

This has been exaggerated by the US. I have to say that I am not anti-US in any way. I lived in the US for ten years. I respect its universities. I respect its society. But having a countervailing force is a good thing. With Europe as a countervailing force and Asia also as a countervailing force, we can compete with each other. That is a good thing. We need to have multipolar, equitable global governance.

With regard to China, it is not only a question of history. You are right it is probably competition for hegemony. But I am of the view that China will eventually be the center of Asia. Japan should not compete. Japan is just a small island at the peninsular end of the continent. Japan is like the UK. The big powers in Asia are China and India, like France and Germany in Europe. That is how it used to be. For the last 1,500 years, both Korea and Japan lived under the shadow cast by China. We have managed to survive under this very loose Chinese hegemony. That may be again what we are heading toward.

I think there is a role for Japan and Korea to play. As long as China recognizes this, I don't think the Japanese should vie for hegemony in this region. Japan has modernized itself ahead of other countries. Japan has the technology. So we have various factors that we could contribute. But Japanese hegemony in this region would just regenerate the negative legacies of the past. We don't need hegemony. We need cooperation. I think we should let the Chinese know that.

Q I was glad to hear your favorable comments on an AMF, an idea that was killed in the past. I want to hear your frank opinion on why it was rejected. What are the prospects for an AMF in the near future?

A It failed at that time. Of course, there was very strong opposition from the US. But what I really regret is that I did not consult closely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I did not have the time. I did not have, at that time, the proper contacts in the Chinese government. I went through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to approach China. That was a long way around, and the negotiations had to be done in a matter of four or five days. The original AMF proposal was proposed very hurriedly.

The Chinese system takes some time to reach conclusions. It's a huge bureaucracy. I should have taken more time to consult with China. The Chinese attitude toward the AMF and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has since changed. They have had some study groups and some deliberations within various organizations. They have now become very positive toward financial cooperation.

That was in the middle of the crisis, which erupted in Thailand. It was about to move to Malaysia. We thought we needed to form some sort of AMF very quickly. If it had not been during the crisis, I would have taken more time. The original AMF proposal was done in a matter of two weeks. We knew the crisis was spreading to Malaysia. But in our anxiety, we did not know it would spread to Korea. We learned that in October. That's why we

had to propose the AMF very hurriedly.

- Q** The Chiang Mai Initiative has been very successful. In addition, eleven central bank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have agreed to cooperate on an Asian bond fund. The next meeting for those central banks will be held here in Seoul. With these two kinds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do you still think the Japanese initiative for an Asian monetary fund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the Asia Development Bank's Asia Development Fund (ADF) has only given money in Northeast Asia to parts of China and Mongolia, amounting to 1.8% of its lending. But countries like Bangladesh and Pakistan get 54% of total loans. So do you think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Fund is formable? Do you think it would be suitable?

- A** This Asia bond initiative is a good thing, which we need to jointly endorse.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concrete products, either in Seoul, Tokyo, or Bangkok. I think my former colleagues at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your ministry to come up with some specific products.

With regard to the ADF, your proposal is right and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ADF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within this Northeast Asian region. The Asian Development Bank should be utilized more.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even further.

But with regard to the AMF, I do not necessarily stick to a regional formation. My idea is to pool our foreign reserves. We have huge foreign reserves. Again, this is not an anti-US proposition. Huge amounts of these foreign reserves are being invested in US Treasuries alone. Of course, this is supporting US financial markets. I'm not suggesting that all of that money be taken out of US markets. Why not just 10% of it? Why not take 10% of our foreign reserves and jointly manage them in some strategic way. That could

be done.

We have enough foreign reserves. Japanese foreign reserves today are three times higher than when I was vice minister. That means that within a matter of four years, Japanese foreign reserves have tripled. Why not take 10% of these funds and use them jointly for some strategic purpose? How should we use it? We can mature the bond market, have some kind of partial guarantee, or offer some types of subsidies. There are many options. We could think about various strategic uses for these foreign reserves. That could serve as one of the cornerstones of regional cooperation.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